



◇부처님 가르침을 동요와 선법가로 접목시킨 음악극 '나의 작은별 이야기' 공연 모습.

“어려운 친구들 돕자” 음성공양

음악극 '나의 작은별...' 등 큰 호응

‘소년소녀가장들’ 제4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불교합창제가 1월 27일 ‘천여 사부대중이 모신 가운데 광주 5 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지원(지원장 해월 스님) 어린이합창단의 ‘선법가’ 합창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무대에서, 어린이합창단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자며 고사리손 꼭 잡고 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했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 외에도 안양 본원 어린이합창단이 특별출연해 합동공연을 선보였으며, 광주지원 청년합창단과 광주불교사암연합창단 등도 출연하여 너와 내가 불어 아닌 공생 공음 공심 법을 아름다운 노래선율에 담아 선보였다. 특히 이날 합창제에서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선보인 음악극 '나의 작은별 이야기'와 '아빠들에게 보내는 노래' 등은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합창제에는 광주사암연합회장 박성스님, 무각사 공인스님, 신광사 경주스님, 법문사 월인스님, 고재유 광주시장, 오주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일 광주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 고영배 기자 yjoo@buddhaha.com

불교영화 '동승' 사찰순회 상영

3~8월까지, 일반극장선 9월부터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팔초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던 영화계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준 불교영화 '동승'이 1월 27일 남산감독협회에서 시사회를 갖고, 첫선을 보였다.



◇영화 '동승'은 인간 고뇌의 해결과정을 수려한 영상과 함께 그려낸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조망하는 이 영화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먼 길을 떠나는 동승을 도반 김태진 씨와 삶의 과도기에서 갈등하는 젊은 스님 '정심' 김민고 씨의 이야기가 중심 틀을 이룬다. 이 불안에는 기쁨과 슬픔, 이별의 아픔 등 오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상을 향한 동승의 가슴 저민 그리움이 화두처럼 영화의 밑바닥에 깔리며,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엮어나간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되는 온갖 번뇌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는게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다. 동승역의 김태진 군의 그리움에 몰려다니는 자연스런 연기가 안동 봉정사와 순천 선암사, 진부 월정사 등 산사의 수려한 풍경과 더불어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식별한 106명의 어린이들이 불가에 입문하는 장면과 1백명 스님들의 비라춤 장면은

영화 '동승'은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대규모 사찰을 순회하며 선보인 뒤, 9월 경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ha.com

풍성하고 설 여유롭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마당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까운 문화현장을 찾아 평소 접하지 못했던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놀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모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공 백수궁을 비롯한 서울 시내 4대 궁과 종로 14개 능 원 등 사적지 23곳과 국립박물관 10개 지방박물관 포함인 설 연휴기간(10~13일)동안 한복 착용자 및 말미 해 출생자에 대해 무료 관람의 특혜도 준다. 또한 지방의 경우도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 주관 아래 향토 색 짙은 민속행사들을 마련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설 문화행사' = 국립중앙박물관은 '팔소재 문화재 찾기' '문화재 퍼즐놀이' '12지신상 스탬프찍기 및 탁본찍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지방박물관도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의 전통민속놀이 마당을 연다. 02-398-5077

●국립민속박물관 '설문화 풍속전' = 국립민속박물관은 '설문화 풍속전' '새 천년의 여권, 힘과 희망을 주는 말 전시회' '한국의 술과 떡의 미학전' 등 전시회와 '떡국 먹고 설하기' '새 희망을 담은 입춘철 씨앗기' 등을 마련한다. 02-720-3138

●한옥마을 '설날 큰 잔치' =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은 임인년 운수대통 남산골 설날 큰잔치'라는 주제로 연

곳곳서 문화마당... 말띠·한복입은 사람 고궁 무료입장

●국립국악원 설 특별공연 '휴(休)' = 국립국악원은 12일 오후 5시 예약당에서 설맞이 특별공연 '우리 소리 안에서 쉬다-휴(休)'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산조의 형식인 단(團)·중(中)·식(食)의 흐름에 맞춰 현대인형극회의 줄인형 놀이 '사물과 옛장수',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정악단의 '화·연화대·처용무 합설', '설복춤'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02-580-3042

●인사아트센터 '농산물-예술품 만남전' = 벤처 농산품과 예술품이 한데 어울리는 이색 전시회 '벤처농업과 문화번치의 만남전'은 13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정(情)'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석류와 밤이 분청 그릇에 놓이고, 전통주가 도예 작품에 담긴 등 예술품과 농산품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과 공간을 연출한다. 02-736-1020

●정동극장 '설날맞이 전통예술무대' = 정동극장의 '설날맞이 전통예술무대' 공연은 9-13일(월요일 공연 없음) 오후 4시 열린다.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 우리 전통예술의 신명나는 가락과 출사위를 펼쳐보일 이번 공연은 부채춤, 산조합주, 관공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02-773-8960.

날리기 대축제, 차례상 차리기 강좌, 가래떡 만들기 행사, 월드컵 성공개회 기원 재수굿 한마당, 가훈 써주기 등 개최한다. 02-2266-6937

●한국민속촌 '설날 문화행사' = 한국민속촌에서는 '월드컵 성공개회 기원 큰굿 한마당'과 '장승제' '정초고사' '소원성취 소지율리기' 등을 비롯 널뛰기, 줄타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031)286-2111

●상징학 '설 특별 행사' = 서울 성북동 상징학에서는 설 당일날 복청사자놀음과 널뛰기 시연을 갖는다. 또 9-17일에는 월드컵 마스코트와 축구공, 송례문 등 문화재를 얼음으로 조각해 앞마당에 전시하고, 이순신 장군의 '전쟁 상호연' 등 방패연 33점은 9-26일까지 선보인다. 무료입장. 02-3676-6789

●운현궁 '무료 복조리 나누기 행사' = 서울 운현궁에서는 연휴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손으로 만든 복조리를 나눠준다.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걸어놓는다는 '아광귀레' 등 세시풍속 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02-766-9090

문화 담당 = 이은자 기자 ejo@buddhaha.com

송암 스님 유작음반 출시

상주공권 1~5집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였던 송암스님의 유작 음반 <상주공권(常住動供, 1집~5집)>이 나왔다.

이번 음반은 지난해 선보였던 유작 음반 <영산>에 이은 것이다. 음반에 수록된 곡은 송암스님이 1968년부터 73년 직접 필녹음기를 작동하여 녹음한 필테이프와 동주스님(서울 대방동 흥원사 주지) 소장 필테이프, 불교음악연구소장 법현스님이 채록한 테이프 등에서 <상주공권> 부분만 발췌하여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상주공권'이란 일상적으로 항상 재배를 올린다는 의미이다. 재가



운대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영산재나 각배재 절차 구성 형식을 1일 권공의식으로 예경하는 것이다. 시편·대령·관속·신중작법·상단권공·신중퇴공·관음시식·전시식·봉송의식의 8단계로 진행되는 데, 이번 음반에는 상단 권공 후소리와 관음시식 절차의 안채비소리, 신중작법의 반짓소리, 시편시 사용 되는 지소리 보례 순으로 담았다.



춤 이렇게

동산불교대, 발표회

동산불교대학 우리춤과 학생 20여명이 1월 31일 불교대학 3층 법당에서 '춤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무대는 지난 1년 동안 이애주 씨무형문화재 제27호 승보유자의 지도로 갖고 다룬 춤 솜씨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리춤' '우리춤기법' 등을 선보였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완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도 영가등이 있습니다.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현터연등 전선 케이블



만월등

팔모점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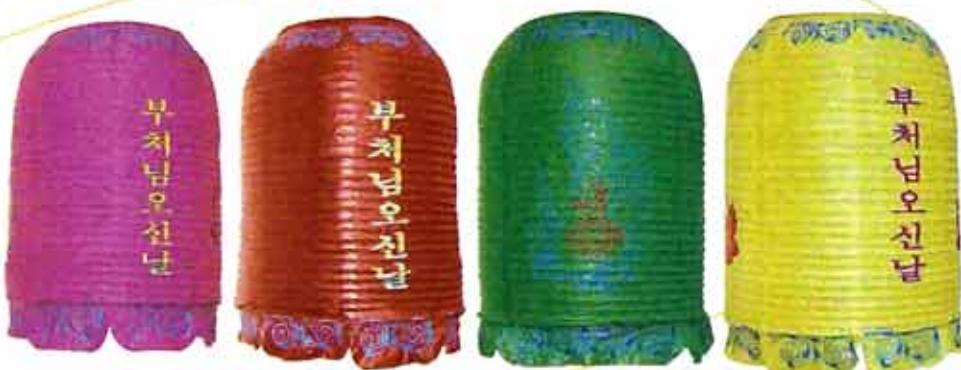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각 충성을 구해내고 악령과 고령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과 연등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밧줄 천이고지 천(천연염색)에서 '부처님오신날' 각종 밧줄 밧줄을 염색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 연등용 전선 케이블 (특허 제122168호) / 공단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및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전택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아남시 훈궁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